
2012년 호주 농업전망대회 출장보고서

I. 출장 목적

- 호주 농업전망대회 참가 및 정보 획득, 시사점 도출

II. 출장기간 및 상세일정

■ 출장기간 및 지역

- 기 간: 2012년 3월 5일(월) ~ 8(목) (2박 4일)
- 지 역: 호주 캔버라市(시드니, 멜버른 경유)
- 출장자: 우병준 연구위원, 남경수 초청연구원

■ 상세일정

일시	일정 및 방문기관	주요 내용
3월 5일(월)	▪ 출국: 인천(5일 18:20)	
3월 6일(화)	▪ 도착: 멜버른(07:10) ▪ 이동: 멜버른(09:20) → 캔버라(10:25)	
	▪ 호주 농업전망대회 1일차 참석	▪ 1일차 세션 청취 (총론, 낙농 분야)
3월 7일(수)	▪ 호주 농업전망대회 2일차 참석	▪ 2일차 세션 청취 (축산, 육류 분야)
	▪ 이동: 캔버라(19:55) → 시드니(20:45)	
3월 8일(목)	▪ 귀국: 시드니(09:00) → 인천(17:30)	

Ⅲ. 출장 내용

▣ 호주 농업전망대회 주요 발표 내용 요약

1. 세계 경제 전망

- 민간 부문 수요 약세와 주요 OECD 국가의 공공부채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성장은 2011년보다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의 떠오르는 신흥시장에 의해 세계 경제활동은 일정 부분 지지되겠지만, 최근의 OECD 지역의 낮은 성장과 이에 따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아시아 국가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앞으로 당분간 OECD 국가들의 민간 부문 수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높은 실업률과 자산시장의 평가절하, 국가부채 문제로 악화된 금융 시장 등의 영향은 소비자를 위축시켜 소비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OECD 전체 국가들의 총 경제성장률은 2012년 1.5%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1년의 1.6%보다 더 낮은 수준임.
- 신흥 경제국에 있어서 단기적인 경제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성장률의 둔화가 전망됨. 기존 선진국의 둔화된 경제성장률에 의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수출세가 약세로 전망됨. 특히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을 중점적으로 행하는 국가들의 부진이 우려되지만 자국 내수 증진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상당 부분 극복할 것으로 보임.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2012년 연평균 성장률은 6.1%로 2011년의 6.4% 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모든 경제상황을 종합할 때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1년의 3.8% 보다 둔화된 3.5%로 단기 전망됨. 중장기적으로는 2013년 3.9%, 2014년 4.4%로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경제성장률 회복은 OECD 국가의 민간수요 회복에 기인한 것이며 2017년까지 매년 연간 4%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OECD 국가에서의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은 세계 경제성장에 있

어서 주요한 위협으로 전망됨.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과 같은 주요 OECD 국가의 순정부부채는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전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미국의 경우 정부의 순부채는 2011년 GDP의 102% 수준에서 2016년 11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의 경우는 같은 기간 233%에서 25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국가 순부채 비중 추이 전망

단위: %

국가명	2007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브라질	65.2	66.0	64.2	62.0	57.2
중국	19.6	26.6	23.3	20.9	10.9
프랑스	64.2	87.0	90.7	93.1	87.7
독일	65.0	81.5	81.6	79.8	75.0
인도	72.7	65.8	65.3	64.4	59.7
이태리	103.6	121.4	125.3	126.6	114.1
일본	187.7	233.4	241.0	246.8	253.4
영국	43.9	80.8	86.6	90.3	80.4
미국	62.3	102.0	107.6	112.0	115.4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표 4. 주요 국가별 거시경제 변수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OECD	전체	3.2	1.6	1.5	2.0	2.5	2.3	2.1	2.1
	미국	3.0	1.7	2.0	2.4	2.8	2.6	2.5	2.5
	일본	4.4	-0.9	2.0	1.6	1.6	1.5	1.5	1.5
	서유럽	1.9	1.5	0.0	1.0	1.9	1.8	1.8	1.8
	독일	3.7	3.0	0.8	1.5	2.1	2.0	1.8	1.8
	프랑스	1.4	1.7	0.4	1.2	1.7	1.6	1.6	1.6
	영국	2.1	0.9	0.7	1.8	2.6	2.5	2.4	2.4
	이태리	1.5	0.3	-1.5	-0.2	0.8	1.0	1.2	1.2
	한국	6.2	3.6	3.6	4.2	4.2	4.1	4.0	4.0
	뉴질랜드	1.3	1.6	2.7	3.1	2.7	2.6	2.6	2.6
개도국	전체	7.9	6.4	6.1	6.4	6.6	6.5	6.3	6.3
	非OECD								
	아시아	9.5	7.9	7.5	7.8	7.9	7.7	7.4	7.4
	동남아 ¹⁾	6.9	4.8	5.7	5.7	5.9	5.7	5.6	5.6
	중국 ²⁾	10.4	9.2	8.5	8.6	8.5	8.3	8.0	8.0
	대만	10.7	4.0	3.8	4.8	4.7	4.5	4.2	4.2
	싱가폴	14.5	4.8	3.4	4.8	4.7	4.3	4.2	4.2
	인도	8.7	7.3	7.5	8.0	8.5	8.5	8.0	8.0
	중남미	6.1	4.6	4.0	4.2	4.4	4.2	4.2	4.2

	중동	4.3	3.1	3.4	3.7	4.2	4.0	4.0	4.0
	러시아	4.0	4.1	3.5	3.7	4.2	4.0	4.0	4.0
	우크라이나	4.2	4.9	3.8	4.0	4.1	4.0	4.0	4.0
	동유럽	4.5	5.1	1.5	2.8	3.8	4.3	4.4	4.4
	세계	5.2	3.8	3.5	3.9	4.4	4.2	4.0	4.0

주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주2): 홍콩은 제외함.

자료: ABARE, IMF, OECD, 호주연방은행

2. 호주 농림수산업 전망(총괄)

- 호주 농업총생산 성장률은 2011~12년의 4.2% 증가에 이어 2012~13년에는 약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0~2012년초까지 지속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점차 좀 더 건조한 기후조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전망은 현재 및 과거의 기후 자료를 바탕으로 다습한 기후조건이 보통 2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전국적인 많은 강우 발생은 토양의 습도와 용수량을 보충해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호주 대부분 지역의 농업생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중장기적으로 호주 농업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2016~17년에 이르러서는 2011~12년의 농업생산보다 약 5.4% 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호주 농산물 수출에서의 단위당 이익(unit return) 지표는 2011~12년의 경우에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겠지만 2012~13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수출 감소는 세계 곡물 및 낙농제품 가격 하락에 기인함.
- 농산물 수출액은 2012~13년에 약 35.1십억 불로 전망되나 이는 2011~12년의 35.5십억 불보다 감소한 수치임.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으로는 canola(2%), 목화솜(9%), grain sorghum(12%), 포도주(5%), 쇠고기(1%), 양고기(22%) 등임.
- 2012~13년 곡물 수출액은 2011~12년의 20.7십억 불보다 감소한 19.8십억 불로 전망되는 반면, 축산물 수출액은 3.6% 증가한 15.3십억 불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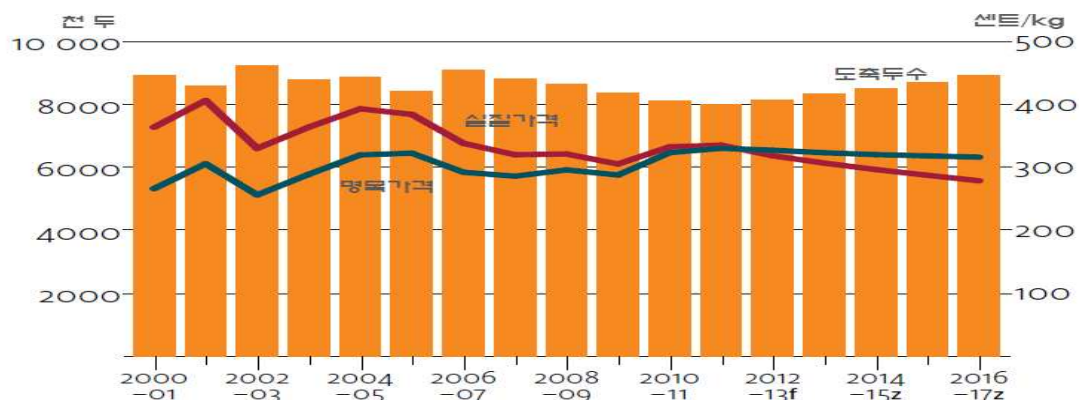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는 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호주의 쇠고기 산업 현황과 전망

가. 도축두수와 가격

- 송아지 입식 수요 증가와 도축두수 감소로 2011~12년 비육우 경락가격(지육kg)은 전년보다 2% 상승한 330센트로 추정됨. 이러한 가격 강세가 2012~13년에도 이어져 비육우 가격은 325센트 내외로 전망됨.
- 2012~13년에는 송아지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반면, 도축두수와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비육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우시장 가격 하락과 고부가가치의 냉장 쇠고기 수출량보다 냉동 쇠고기 수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출에 따른 기대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호주 북부지방의 2012~13년 거세우와 암송아지 가격은 2011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인도네시아의 생우 수입 쿼터물량을 2011년 50만두에서 2012년 28만 3천두로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임.
- 향후 사육두수 증가로 인하여 비육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전 세계적으로 쇠고기 공급이 증가하고 수출 시장에서의 국가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2016~17년 비육우 평균 가격은 지육kg당 275센트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호주의 소 도축두수와 경락가격(지육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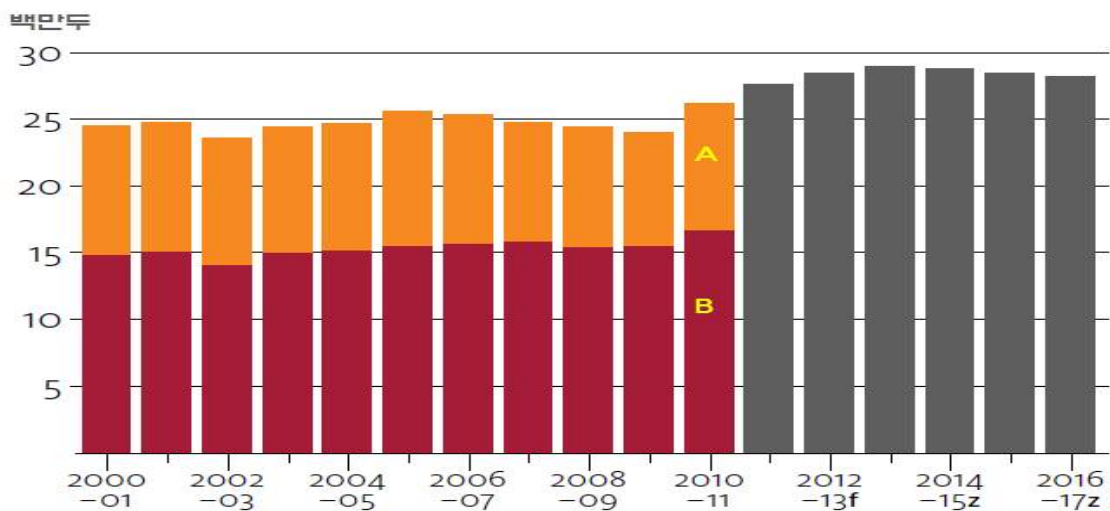


자료: f는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 추정치, z는 전망치임.

나. 사육두수

- 2011~12년 호주의 소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5% 증가한 2천 7백 6십만 두로 추정됨. 2012~13년에는 전년보다 4% 증가한 2천 8백 8십만 두로 전망됨.
- 2009~10년 이후 초지 생육여건이 호전되면서 암소 사육두수가 증가하였음. 2010~11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의 암소 입식두수는 전년보다 27%, 빅토리아(Vic) 16%, 퀸즐랜드(Qld) 13%, 뉴사우스웨일스(NSW)는 8% 증가하였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A)의 남부지역에서 2011년 하반기 암소 도축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12~13년에도 이러한 암소 사육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목초 급여조건이 양호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2013~14년 호주의 소 사육두수는 2천 9백 1십만 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1975~76년 이후 사육두수 중에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임. 2013~14년에는 도축두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육우 가격은 약세로 전망됨.

<호주의 소 사육두수>



주: A부분은 뉴사우스웨일스(NSW), 빅토리아(Vic),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테즈메이니아(Tas),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주(ACT) 등의 소 사육두수임. B부분은 퀸즐랜드(Qld),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 노던준주(NT) 등의 사육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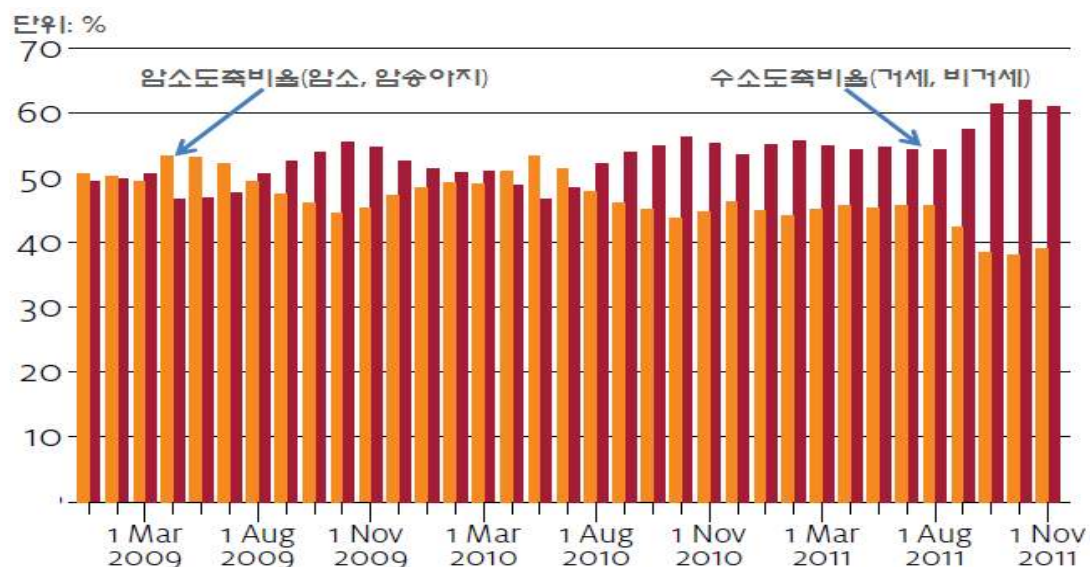
자료: f는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 추정치, z는 전망치임.

- 2000~01년 이후 호주의 비육우 사육두수는 연평균 7%씩 증가하였음. 이러한 사육규모 확대는 주로 퀸즐랜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북부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지난 10년 동안 호주 남부지역의 비육우 사육두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였으나, 향후에는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 생산량

- 2011~12년 도축두수는 전년보다 2% 감소한 7천 9백만 두, 2012~13년에는 전년보다 2% 증가한 8천 1백만 두로 추정됨. 최근 2년 동안의 도축두수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머징 마켓(신흥 시장)의 수요 증가로 쇠고기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1~12년 도축두수를 저점으로 향후 암소 도축은 지속적인 증가세가 전망됨.
- 2011~12년 송아지 및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한 2백 1십만 톤, 2012~13년에는 전년보다 2% 증가한 2백 2십만 톤으로 추정됨. 이는 도축두수에서 큰 소 도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임.

<도축두수 중 암소 도축비율>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라. 쇠고기 수출

- 호주의 쇠고기 산업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총 쇠고기 생산량의 3분의 2를 수출하는 국가임. 2011~12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한 9십 5만 5천 톤, 2012~13년에는 전년보다 1.6% 증가한 9십 7만 톤으로 추정됨. 2011~12년 쇠고기 수출액은 전년보다 3% 증가한 44억 7천만 달러, 2012~13년에는 45억 3천만 달러로 추정됨.
- 호주산 쇠고기의 주요 시장은 일본, 미국, 한국 등임.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미국산 쇠고기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국의 경우 자국내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호주산 쇠고기 수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미국 시장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한국의 경우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호주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보임.
- 중기적으로 보면, 2016~17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104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 중 수출량 비중은 현재의 70%에서 2016~17년에는 다소 떨어진 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 감소에 따라 2011~12년 호주의 대미 쇠고기 수출량(선적기준)은 전년보다 6% 증가한 17만 톤, 2012~13년에는 전년보다 6% 증가한 18만 톤으로 추정됨.

<대미 쇠고기 수출량과 환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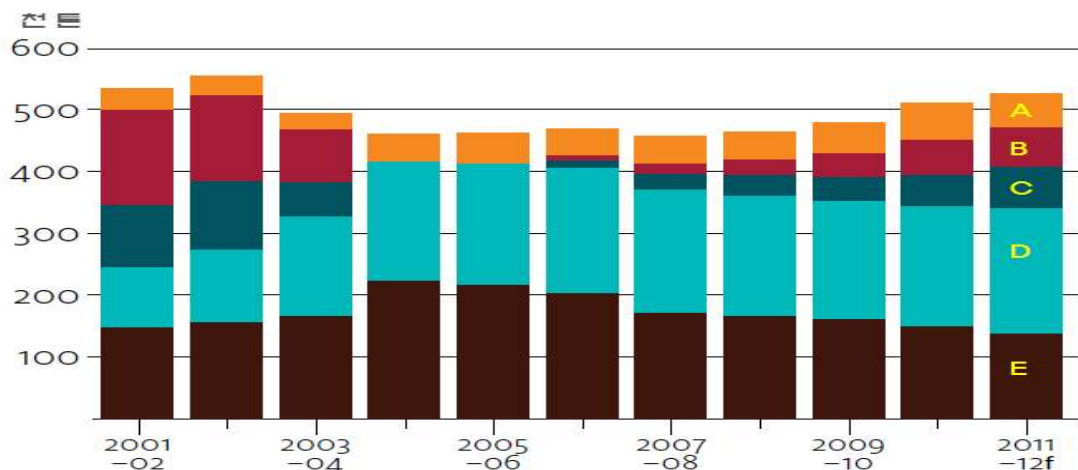
자료: f는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 추정치, z는 전망치임.

- 가뭄이 지속되면서 미국 남부지역의 쇠고기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비육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나 사료비 인상 등으로 기대수익이 부(負)를 기록하고 있음. 미국의 소 도축두수는 2011~12년에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미국의 수입 증가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호주의 쇠고기 수출업자는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저렴한 캐나다와 멕시코 수출업자와 경쟁함. 2008~09년 이후 캐나다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은 30~35%를 유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2%에서 8%까지 시장을 확대하였음.
- 2016~17년 호주의 대미 쇠고기 수출량은 23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가공육 수요는 자국내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미국내 쇠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가공육은 호주를 포함한 여타 국가에서 수입해야하는 실정임.

마. 일본의 쇠고기 수입

- 2011~12년 호주의 대일 쇠고기 수출량(선적기준)은 전년보다 4% 감소한 33만 8천 톤, 2012~13년에는 전년보다 2% 감소한 33만 톤으로 추정됨. 일본의 쇠고기 수입이 늘었으나 환율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향후 이러한 외부요인이 악화될 경우 미국산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산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일본의 쇠고기 수입량>



주: A는 기타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이며, B는 미국산 냉동, C는 미국산 냉장, D는 호주산 냉동, E는 호주산 냉장 수입량임.

바. 쇠고기 수급 전망

<호주 쇠고기 수급 전망>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육가격 (호주 센트/kg)	명목	288	323	330	325	322	319	315	312
	실질	305	332	330	316	306	295	285	275
사육두수 (백만 두)	소	26.6	28.8	30.2	31.4	31.8	31.6	31.4	31.2
	비육우	24.0	26.2	27.6	28.8	29.1	28.9	28.7	28.5
도축두수(천 두)		8,364	8,097	7,935	8,090	8,275	8,485	8,695	8,930
생산량(천 톤)		2,109	2,133	2,145	2,190	2,230	2,255	2,280	2,310
1인당 소비량(kg)		35.1	33.2	31.7	32.7	33	32.6	32.3	31.9
수출량 (천 톤)	총수출	899	937	955	970	985	1,005	1,020	1,040
	미국	211	160	170	180	190	200	215	230
	일본	350	351	338	330	325	320	320	315
	한국	124	139	145	142	140	137	135	135
수출액 (백만 달러)	명목	3,953	4,328	4,468	4,530	4,580	4,655	4,710	4,795
	실질	4,192	4,452	4,468	4,407	4,347	4,310	4,255	4,226
생우수출(천 두)		871	728	500	500	520	535	550	575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

4. 돼지

- 수입되는 모든 냉동 돼지고기는 반드시 가공(베이컨, 햄 등)되어야 한다는 호주의 검역조치에 따라 호주의 양돈산업은 돼지고기 가공육부분에서 경쟁이 심화되었음. 지난 10년 동안 수입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15%에서 48%까지 증가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수입 가공육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호주의 양돈농가는 신선육 생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생산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사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13년 호주의 돼지고기 kg당 가격은 전년 동기간보다 2% 하락한 275센트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사료가격 하락이 양돈농가 소득을 보전해줄 것으로 보임.
- 향후 2016-17년까지 돼지고기 가격이 kg당 265센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

망됨. 그 원인으로 호주달러 강세에 따른 가공육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호주의 신선육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12-13년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 증가한 352천 톤으로 전망됨. 향후 사료비가 줄어들고,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6-17년까지 돼지고기 생산량은 370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 호주산 돼지고기 신선육에 대한 소비패턴이 변할 것으로 예상됨. Australian Pork Limited에 따르면 신선육 소비는 전체 돼지고기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0-11년 신선육 생산량이 273천 톤이었던 것이 2016-17년 315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호주 전체 돼지고기 생산에서 가공육 생산비중은 2003-04년 37%에서 2010-11년 20%까지 줄었고, 2016-17년 15%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결과는 가공육 수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가공육 생산량은 2010-11년 69천 톤에서 2016-17년 55천 톤까지 줄어들 전망임.
-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0-01년 26천 톤에서 2010-11년 132천 톤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1-12년 138천 톤, 2012-13년은 143천 톤으로 전망됨. 중장기적으로 2016-17년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164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11-12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32천 톤으로 추정되고, 2012-13년은 이보다 2% 증가한 32.5천 톤으로 전망됨. 전체 수출량의 2/3가량이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로 수출되고 있으며, 2016-17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15%인 36천 톤으로 전망됨.

5. 가금류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대체 육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가금육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012-13년 호주의 가금육류 생산량은 2% 증가한 1,105천 톤으로 전망됨.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 가금육류 생산량은 연간 2%씩 증가하여 2016-17년

1,210천 톤에 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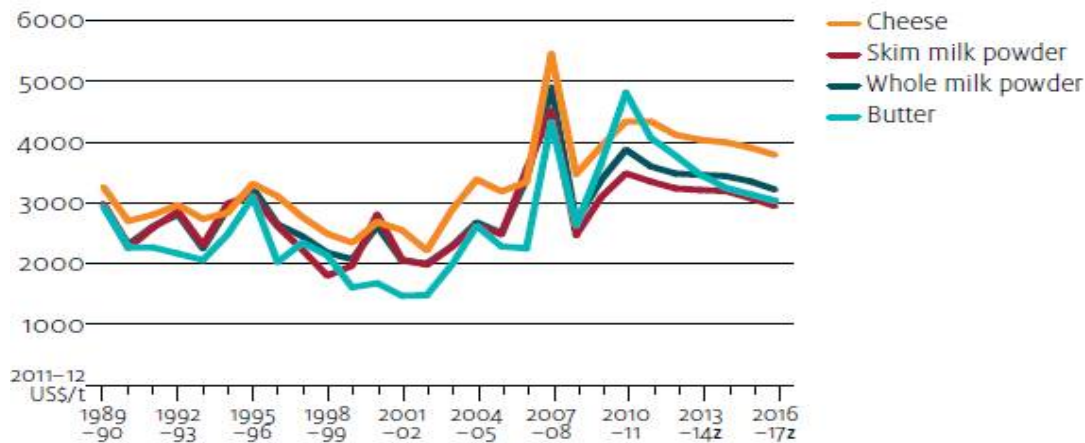
- 2012-13년 감금육류 1인당 소비량은 45.5kg으로 추정되고, 연간 1%씩 증가하여 2016-17년에는 46.4kg으로 전망됨.
- 지난 10년간 호주 가금류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유전적 향상은 산란율, 사료요구율, 평균 도체중 향상으로 이어졌다. 2000-01년에서 2010-11년까지 평균 도체중은 19%증가한 1.85kg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호주의 가금류 수출량에서 홍콩,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량이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2012-13년 수출량은 41천 톤으로 전망됨. 중장기적으로 닭고기 수출량은 소폭 증가하겠으나, 대부분이 자국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됨.

6. 낙농

가. 2016-17년 전망

- 2012-13년 세계 유제품 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개발도상국의 유제품 수요는 일정할 것으로 전망되나, EU 및 미국의 경기침체로 전체적인 유제품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또한 주요 수출국가의 생산량 증가도 이러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2012-13년 버터 국제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전년보다 5% 하락한 3,850 US\$/톤으로 추정되며,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 가격은 전년보다 1% 하락한 3,300 US\$/톤 및 3,550 US\$/톤으로 예상됨. 치즈 가격은 3% 하락한 4,200 US\$/톤으로 전망됨.
- 향후 5년간 세계 유제품 실질가격은 하락세로 추정되지만, 2006-7년 가격보다는 20-30%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수출국의 유제품 수출량은 향후 몇 년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요량보다 많을 것으로 보임.

나. 세계 유제품 가격 전망



- 주요 낙농국가의 2012-13년 우유 생산량 증가율은 2011-12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보임. 전망기간동안 유제품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됨에 따라 우유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1)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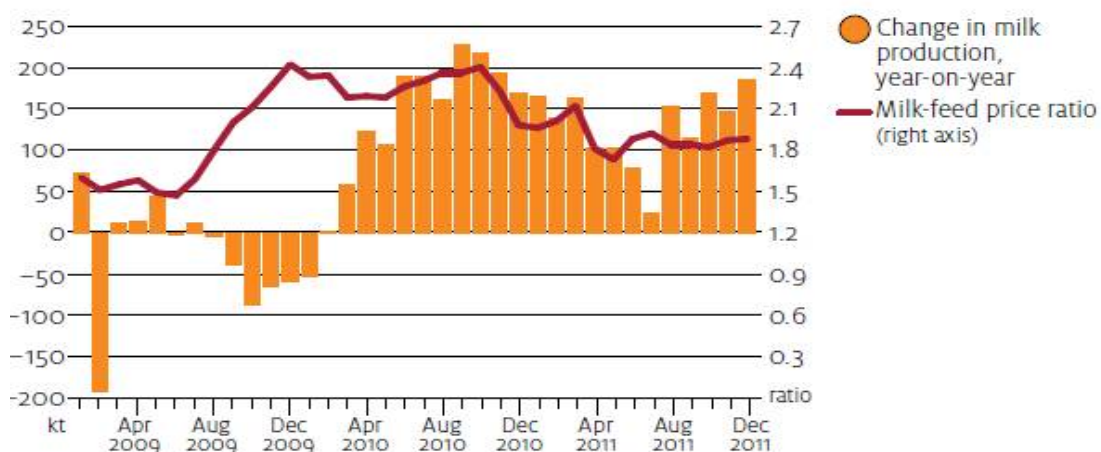
- 2011-12년 우유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13년에는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임. 중기적으로 두당 산유량 증가와 젖소 사육마리수 감소세가 상쇄되면서 전체적인 우유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EU내에서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많이 드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에서는 낙농업 구조 조정이 시행되면서 향후 5년간 우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2013-14년 EU국가의 쿼터는 1%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15년 4월 1일 전면적인 쿼터 폐지를 앞두고 있어 쿼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지난 몇 년간 EU의 생산량은 쿼터량보다 6-7% 적었으며, 2014-15년에도 생산량은 쿼터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2) 미국

- 두당 산유량 증가로 2012년 미국의 우유 생산량은 1.3% 증가한 9,000만

톤으로 예상됨. 두당 산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사료 가격 증가 및 우유 가격 하락으로 향후 우유 생산량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암소도축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중기적으로 두당 산유량 증가와 전초가격 하락으로 우유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미국 낙농업 전망 >



3)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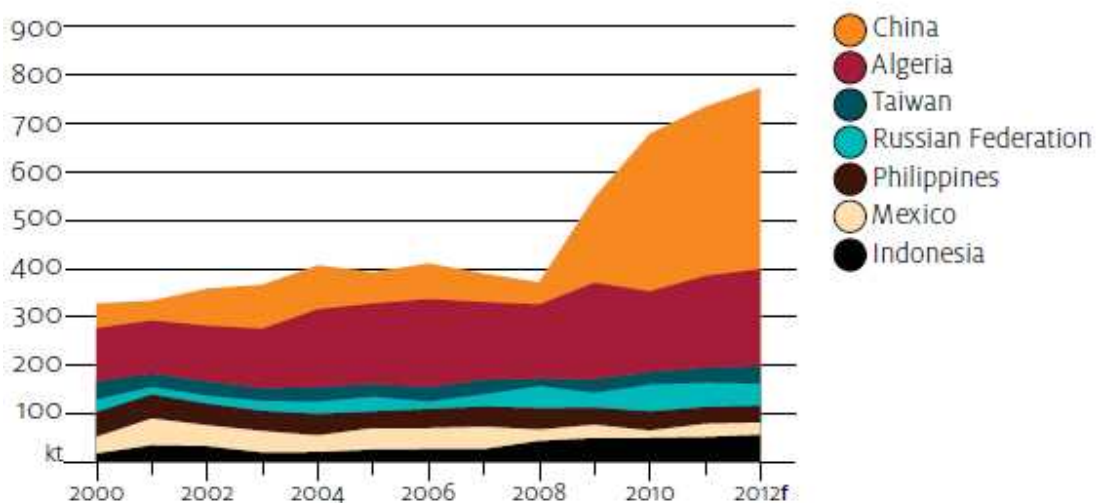
- 계절적 영향 및 사우스아일랜드 지역의 암소 사육마리수 증가로 뉴질랜드의 2012-13년 우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12년 하반기까지 사우스 아일랜드 지역의 80-100곳의 육우 사육농가가 젖소 농가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
- 중기적으로 뉴질랜드의 우유 생산량은 매년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사우스아일랜드 지역의 젖소 사육농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유 가격은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축개량 및 목장환경 개선으로 헥타아르당 우유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4) 중국

- 2009년 이후 중국은 주요 분유 수입국가이며, 2011년에는 세계 전지분유 교역량의 25%를 차지하였음. 이는 유제품에 대한 소비 증가 및 2008년 멜라민 분유로 촉발된 자국산 유제품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임.

- 중기적으로 중국의 유제품 소비 증가세는 소득증가와 함께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자국산 원유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제품 수입국가가 될 것으로 보임. 2008년 이후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으며, 2012년에는 5% 증가한 3,220만톤을 생산할 것으로 보임. 향후 몇 년간 젓소 개량으로 원유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뉴질랜드가 중국시장의 최대 원유 수출국가이나, 미국이 탈지분유 수출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음. 중국은 호주산 전지 분유 및 치즈의 주요 수입국가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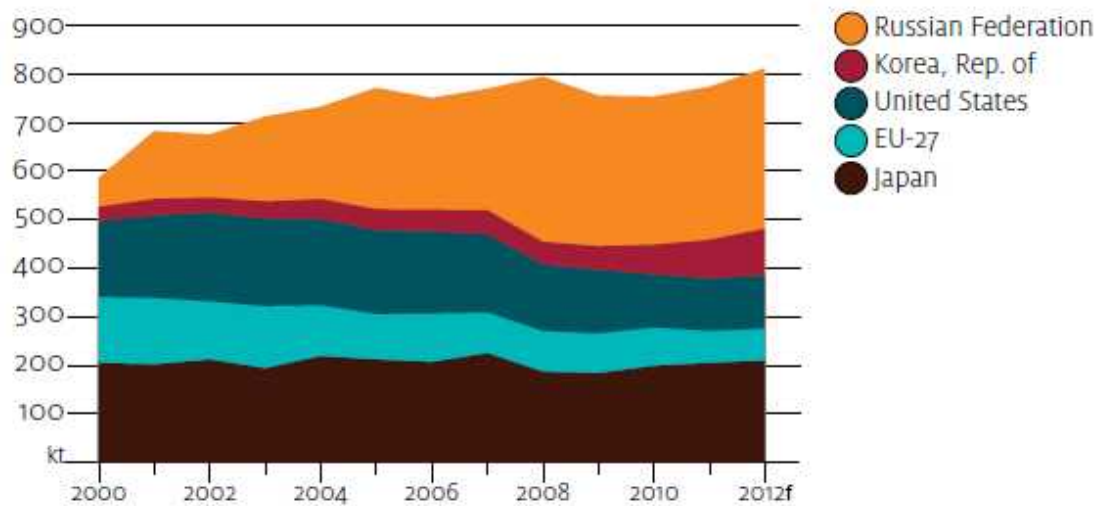
< 주요 전지분유 수출국가 >



5) 러시아 연합

- 러시아 연합은 소비량 증가 및 자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주요 유제품 수입국가임. 2011년 러시아 연합은 13만톤의 버터와 31.5만톤의 치즈를 수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수입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0년 가뭄으로 러시아 연합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중기적으로 원유 생산량은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수요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유제품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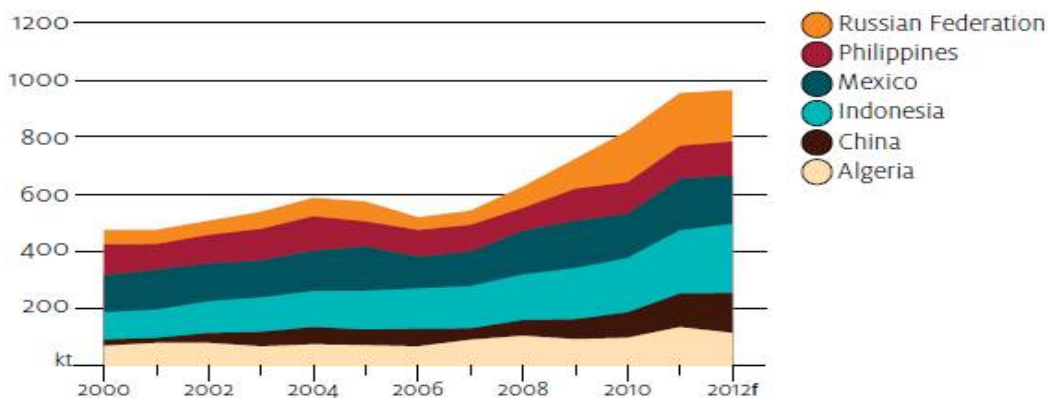
< 주요 치즈수입국 >



6) 극동아시아

- 가정내 소비 증가 및 식품산업내 소비 증가로 2012년 일본의 치즈 수입량은 2% 증가한 21만 톤으로 전망됨. 중기적으로 일본은 확실한 치즈 수입국가로 전망된다. 향후 원유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시유 소비량은 감소하나 가공유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한국의 치즈 수입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9.6만 톤으로 전망됨. 이는 지난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해볼 때 약 60%가 증가한 양임. 한국의 이러한 치즈 소비 증가는 서구식 식단 및 패스트푸드 수요 증가, 다양한 유제품 수요 등이 원인임.

< 주요 탈지분유 수입국가 >



다. 호주 낙농업 전망

- 2012-13년 호주의 원유 농가수취가격은 전년보다 3% 하락한 39.6센트/ℓ로 전망됨. 세계 유제품 가격이 약세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제품 수출업자의 마진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세계 유제품 가격 약세로 2016-17년 호주 원유 농가수취가격은 36센트/ℓ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임.
- 2012-13년 호주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95.5억 리터로 예상됨. 북부 빅토리아와 남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관개시설 개선으로 우유 생산량이 증가하였음. 타즈메니아 지역도 젖소 사육두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우유 가격선 유지와 사육환경 개선으로 사육마리수가 증가하였으며, 2012년 6월 전국 암소 마리수는 전년보다 1% 증가한 162만 마리로 예상됨. 중기적으로 암소 사육마리수 증가 및 두당 산유량 증가로 2016-7년 호주의 원유 생산량은 100억 리터로 예상됨.
- 북부 빅토리아 지역과 남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관개시설 개선으로 우유 생산량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012년 2월초 Murray-Darling 저수지는 약 83%의 담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9년보다 25% 증가한 양임. 이는 곧 젖소 사육농가의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될 것임.

라. 호주 유제품 수출

- 국제 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호주의 2012-13년 유제품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보다 4% 감소한 23억 달러로 추정됨. 중기적으로 2014-15년 호주의 유제품 수출액은 약간 상승한 23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6-17년에는 소폭 하락한 22억 달러로 예상됨.
- 호주의 주요 수출지역은 아시아이며, 이 지역으로의 수출이 2010-11년 전체 수출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일본은 전체 수출액의 16%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대상국이며, 호주산 치즈 수출량의 절반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음.

IV. 시사점

- 세계 경제성장 전망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일부 국가의 재정 위험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후 중장기 이후부터는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호주 농축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지속된 홍수 피해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규모 감소로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수출이 회복되고 농축산업 생산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중장기 전망을 5년 한도 내에서 선행 전망하고 있음. 이는 농업전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변적인 세계 농업시장의 모습을 적절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현행 KREI 농업전망은 10년 선행 전망하고 있으나 그 신뢰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선행 전망 기간 단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호주 농업전망대회는 2일에 걸쳐 이루어지며 만찬은 1일차 오후에 ABARE 주최로 개최됨. 만찬 참석을 원하는 인원에게 한해 사전 예약을 받고 식사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함.
 - 업계와 학계의 정보교환 및 사교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으며, 참석자들은 모두 비용을 지불하고 참석함.
- 호주 농업전망대회는 2일에 걸쳐 진행되면서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함께 이루어짐. 특히 ABARE 소속 인원의 발표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발표와 청중과의 토론 등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업계 및 학계 전체 차원의 행사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 전망대회가 행정수도인 캔버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의 참석은 많지 않음. 다만 호주 국토가 넓기 때문에 5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7회에 걸쳐 각기 다른 장소를 순회하면서 지역 단위 전망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참고 : 호주 농업전망 프로그램 >

□ 1일차 1부(9:00-11:00)

○ 개회사

- 좌장 : Virginia Haussegger(ABC Canberra)
- 개회사 : Senator the Hon. Joe Ludwig

○ Economic Overview

- Paul Morris(ABARES), Prospects for Australia's rural industries
- Bill Evans(Westpac), Outlook for the Australian economy
- Bruce Kasman(JP Morgan Chase), Prospects for the world economy

□ 1일차 2부(11:30-12:45)

○ 세션 1: Farm sector performance - current and future prospects

- Chair: Leigh Radford(ABC Rural)
- Bruce Bowen(ABARES), Australian farm performance 2011 - 12
- Mick Keogh(Australian Farm Institute), Factoring risk into farm decision making
- Khan Horne(National Australia Bank), Lending to Australian agriculture - facts and insights

○ 세션 2: Forestry investment outlook

- Chair: Ric Sinclair(Forest and Wood Products Australia)
- David Cunningham(ABARES), Australian forests and wood products: status and trends
- David Pollard(Australian Forest Products Association), Investment outlook for the forestry sector
- Keith Crews(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Consumer demand for innovative wood products

○ 세션 3: Eco labelling for Australian seafood - is it the way to go?

- Chair: Patrick Hone(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 Robert Curtotti(ABARES), Fishery status reporting - informing the sustainability debate
- Armineh Mardirossian(Woolworths), Sustainable seafood sourcing at Woolworths
- David Carter(Austral Fisheries), Sustainability - eco - labels are not the whole story
- Grahame Turk(Sydney Fish Market), Eco - labelling - what are we telling consumers?

○ 세션 4: **Agricultural stewardship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Chair: Lauchlan McIntosh(AgStewardship Australia)
- Russel Hurst(CLEANFarms / CropLife Canada), Agricultural stewardship and regulation in Canada
- Graeme Norton(Agrecovery New Zealand), Product stewardship enhancing market access for NZ farmers
- Karen Gomez(AgStewardship Australia), Agricultural stewardship progress around the world

□ 1일차 3부(2:00-3:30)

○ 세션 1: **Global food markets 2050**

- Chair: Phillip Glyde(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 Mark Rosegrant(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Longer term prospects for global food demand
- Zhangyue Zhou(James Cook University), Prospects for food demand in China
- Neil Andrews(ABARES), Food demand to 2050 - opportunities for Australia

○ 세션 2: **Biosecurity - facilitating trade**

- Chair: Colin Grant(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 Andrew Inglis(Biosecurity Advisory Council), Challenges for biosecurity policy
- Geoff Honey(Grain Trade Australia), New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arrangements for grains
- Lucy Gregg(Fruit Growers Tasmania), Gaining access to the Japanese and Korean cherry markets

○ 세션 3: **Dairy**

- Chair: Ian Halliday(Dairy Australia)
- John Hogan(ABARES), Outlook for dairy
- Barry Irvin(Bega Cheese), Sink or swim an ocean of opportunity

○ 세션 4: **Natural disasters - clever responses**

- Chair: Leigh Radford(ABC Rural)
- Neil Plummer(Bureau of Meteorology), A tale of two La Niñas
- Graeme Newton(Queensland Reconstruction Authority), New Directions in Post Disaster Reconstruction
- Ron Harris(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VIC), Agricultural recovery from natural disasters - a Victorian perspective

□ 1일차 4부(4:00-5:30)

○ 세션 1: **Progress and future of water policy reform in the Murray–Darling Basin**

- Chair: Leigh Radford(ABC Rural)
- Rhondda Dickson(Murray–Darling Basin Authority), The Murray–Darling Basin draft plan
- Chloe Munro(National Water Commission), The National Water Initiative – impacts, achievements, future action
- Mary Harwood(Department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 and Communities), The water for the future program

○ 세션 2: **Grains**

- Chair: John Harvey(Grain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 Jammie Penm(ABARES), Outlook for grains
- Alison Watkins(GrainCorp), Realising Australia’s opportunity in grain
- Malcolm Bartholomaeus(Profarmer Grain), The tools for hitting income targets and minimising risks in a deregulated wheat market

○ 세션 3: **Horticulture - market alternatives**

- Chair: Richard Mulcahy(AUSVEG)
- Max Foster(ABARES), Outlook for horticulture
- Jane Adams(Australian Farmers' Market Association), Grow up: fresh direct marketing channels
- Vince Pinneri(SPC Ardmona), The future of fruit and vegetable processing in Australia
- Jack Milbank(Hortus Technical Services and Nuffield Scholar), Competing for export markets

□ 2일차 1부(9:00-11:00)

○ 개회사

- 좌장 : Leigh Radford(ABC Rural)
- 개회사 : The Hon Sid Sidebottom MP(Parliamentary Secretary for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 세션 1: **Carbon mitigation and agriculture**

- Chair: Shayleen Thompson(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
- Helal Ahammad(ABARES), Carbon Farming Initiative and agriculture's role in Australia's low emissions future
- Michael Battaglia(CSIRO), Understanding the gaps between technical and realisable mitigation opportunities in Australia
- Ben Keogh(Australian Carbon Traders), Carbon farming: practicalities and realities

○ 세션 2: **Northern beef long term strategy - for a sustainable industry**

- Chair: Robyn Fleming(Department of Regional Australia, Local Government, Arts and Sport)
- Trish Gleeson(ABARES), Northern Australian beef industry: risks and opportunities
- Luke Bowen(Northern Territory Cattlemen's Association), The Northern Australia beef sector: a producer's perspective
- John Berry(JBS Australia), The Northern Australia beef sector: a processor's

perspective

○ **세션 3: Food supply chain issues**

- Chair: Daniela Stehlik(Rural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 Steve Spencer(Freshlogic), Food supply chain - future implications
- David McKinna(McKinna et al), Supermarkets and consumer preferences
- David Pearce(The Centr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ransport infrastructure for Australia's agricultural needs

□ **2일차 2부(11:30-12:45)**

○ **세션 1: Agriculture adapting to climate change**

- Chair: Andrew Ash(CSIRO)
- Kim Ritman(ABARES), Farm risk management in a changing climate
- Snow Barlow(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Research Facility), On - farm options and technologies to reduce climate change risks
- Fleur Grieve(Producer, Riverside Ajana, WA), A whole systems approach to adaptation

○ **세션 2: Agriculture and coal seam gas development - pathways to coexistence**

- Chair: Drew Clarke(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
- Peter Stone(CSIRO and Gas Industry Soc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Alliance), Coal seam gas: intersections with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 management
- Rick Wilkinson(Australian Petroleum Production and Exploration Association), Social license to operate in the coal seam gas sector - an industry perspective
- Ray Brown(Western Downs Regional Council), Coexistence of agriculture and the coal seam gas sector - a regional perspective

○ **세션 3: Meat**

- Chair: Leigh Radford(ABC Rural)
- Peter Collins(ABARES), Outlook for meat

- Iain Mars(JBS Austral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 a JBS perspective
- Scott Hansen(Meat and Livestock Australia), Outlook for emerging export markets for Australian beef

○ 세션 4: **Advances in crop science and technology**

- Chair: Ben Stapley(CropLife Australia)
- Rick Roush(University of Melbourne), GM and sustainable crop systems
- Andrew Hewitt(University of Queensland), Spray application technologies
- Richard Richards(CSIRO), Crop science contributions to food security

□ 2일차 3부(2:00-3:30)

○ 세션 1: **Innovation and productivity**

- Chair: Su McCluskey(Council of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 Alistair Davidson(ABARES), Productivity: is it just about innovation?
- Steve Wright(John Deere), New frontiers in precision agriculture
- Greg Harper(CSIRO), Livestock R&D: should we kiss more frogs
- Philip Pardey(University of Minnesota), R&D and productivity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 세션 2: **Perspectives on development in regional Australia**

- Chair: Leigh Radford(ABC Rural)
- Glenys Beauchamp(Department of Regional Australia, Local Government, Arts and Sport), New approaches to regional policy
- Collene Longmore(Shire of Roebourne WA), Regional development: a north - west perspective
- Glenys Schuntner(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Townsville and North West Queensland), Regional development: a north - east perspective

○ 세션 3: **Fibres**

- Chair: Paul Swan(Australian Wool Innovation)
- Caroline Gunning - Trant(ABARES), Outlook for fibres

- Xiao - ya Wei(Australian Wool Innovation), The Chinese wool textile industry: evolution to affluence
- Phil Graham(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NSW), 2030 weather impact on the wool industry

□ 2일차 4부(4:00-5:30)

○ What future for Australian farmers?

- 좌장: Pip Courtney(ABC Landline)
- Sam Archer(Wallaby Creek Pastoral Co, Gundagai NSW and Nuffield Scholar)
- Scott Gorringer(MurriMatters Consulting and Australian Rural Leadership Fellow)
- David Cussons(Producer, Boken - Boken, WA, Nuffield Scholar)
- Alana Johnson(Producer, Cleadon, VIC, social scientist and Australian Rural Leadership Fellow)
- Fleur Grieve(Producer, Riverside Ajana, WA and Climate Champion)
- Joanna Savill(The Sydney Morning Herald Good Food Guide)
- Charlie McElhone(National Farmers' Federation)